

제48회 중국 상하이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대한민국 종합 2위 달성

- 금 4개, 은 14개, 동 6개, 우수 16개 획득,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WSI) 공식발표 4개 지표 기준 종합 2위
-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분야(웹기술, IT네트워크시스템, 클라우드컴퓨팅, 모바일앱개발, 소프트웨어테스팅, 정보통신망설비) 대한민국 강세
- 웹기술 직종 5회 연속 금메달 쾌거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병훈,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회장 겸직)은 제48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중국 상하이, 9.22.~9.27.)에서 우리나라 선수단이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WSI, World Skills International) 발표 공식 지표 4개를 점수화한 결과를 기준으로 종합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조직위원회(WSI)가 발표한 국가별 비교순위 지표로 4개 항목(평균 점수, 평균 메달 점수, 총 메달 점수, 참가선수 총 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금메달 4개, 은메달 14개, 동메달 6개, 우수 16개를 획득해 253점을 얻어 종합 2위의 성적을 거두었다.

[WSI 공식 발표 4개 지표 기준 종합순위 산정결과]

[경기 참가국 : 65개국]

종합 순위	국가	조직위원회(WSI) 공식 결과 발표 지표 4개									메달집계 참고자료			
		환산 점수 계	평균 점수		평균 메달점수		총 메달점수		참가선수 총 점수		금	은	동	우수
			순위	환산점수	순위	환산점수	순위	환산점수	순위	환산점수				
1위	중국	260	1	65	1	65	1	65	1	65	41	11	4	6
2위	대한민국	253	2	64	2	64	2	64	5	61	4	14	6	16
3위	대만	247	3	63	5	61	3	63	6	60	3	3	7	30
4위	스위스	244	5	61	3	63	4	62	8	58	4	2	6	23
5위	프랑스	237	6	60	4	62	6	60	11	55	4	1	5	18

참고로, 우리나라는 조직위원회(WSI)가 국가별 비교 순위 지표로 발표한 4개 공식 결과(Official results)를 활용하여 종합순위를 산정하는 방식을 2017년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는 일부 특정 지표로 종합순위를 산정하기보다는 질과 양적 측면 모두를 균형 있게 반영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참고) 국가별 비교 순위 공식 발표 자료(4개)]

항 목		산 출 기 준
①	평균 점수 (Average Points Scored)	참가 선수별 취득 점수의 총합계÷국가별 참가 직종 수
②	총 메달점수 (Total Medal Points)	(금메달*4점)+(은메달*3점)+(동메달*2점)+(우수상*1점)
③	평균 메달점수 (Average Medal Points)	(금메달*4점+은메달*3점+동메달*2점+우수상*1점)÷국가별 참가 직종 수
④	참가선수 총 점수 (Total Points Scored)	참가 선수별 취득 점수의 총합계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 분야(웹기술, IT네트워크시스템, 클라우드컴퓨팅, 모바일앱 개발, 소프트웨어테스팅, 정보통신망설비) 직종에서 강세를 나타내며 해당 분야에서만 6개의 메달(금 1, 은 4, 동 1)을 획득했다.

또한,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인 제조공학 기술 분야(산업제어, 광전자기술 직종) 뿐만 아니라 서비스 분야(헤어디자인 직종)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특히, 이번 대회에 웹기술 직종 손현빈 선수(21세)가 금메달을 획득, 2017년 아부다비(Abu Dhabi) 대회 이후 해당 직종 5연패의 행진을 이어 나갔으며, 헤어디자인 직종 김조영 선수(22세)가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2007년 시즈오카(Shizuoka) 대회 이후 19년 만에 헤어디자인 직종 금메달을 탈환하였다.

이병훈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회장(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세계 무대에서 뜨거운 열정과 투혼을 발휘한 국가대표 선수 모두가 매우 자랑스럽다”라며, “공단이 미래 기술인재 양성에 앞장서 대한민국 숙련기술의 새로운 도약기를 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은 대체불가 기술인재가 만든다” 라면서, “기술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인 선수단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정부는 청년 기술인재들이 미래의 주역으로 당당히 성장하도록 아낌없이 지원 하겠다”라고 밝혔다.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에게는 금, 은, 동메달 순위에 따라 각각 6,720만원, 5,600만원, 3,920만원의 상금과 훈포장이 수여된다.

또한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자격시험 면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는 병역 혜택, 해당 직종 종사 시 계속종사장려금(매년 505만원~1,2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2028년 제49회 대회는 일본 아이치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붙임 1. 대회 입상자 명단

2.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발표 공식결과 자료

3.~6. 입상선수 사례

담당 부서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평가과	책임자	과 장	이재국 (044-202-7286)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양지현 (044-202-7291) 정리사 (044-202-7297)
담당 부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제기능경기부	책임자	부 장	장윤석 (032-509-1811)
		담당자	차 장	김성원 (032-509-1813)



입상구분	직 종	성 명	소 속
금메달 (4)	웹기술	손현빈	삼성전자(주)
	산업제어	박지민	삼성중공업(주)
	헤어디자인	김조영	아모담헤어
	광전자기술	유예찬	삼성전기(주)
은메달 (14)	산업기계	최정윤	삼성전자(주)
	기계설계CAD	양근모	삼성전자(주)
	모바일앱개발	임가온	삼성전자(주)
	용접	안창용	삼성중공업(주)
	소프트웨어테스팅	이주원	삼성전자(주)
	공업전자기기	송현준	삼성전기(주)
	전기제어	배신욱	삼성중공업(주)
	모바일로보틱스	김진원, 오부이	삼성전자(주)
	귀금속공예	이승빈	(주)와이스미스
	제과	최승혜	동원과학기술대
	냉동기술	김민제	삼성중공업(주)
	IT네트워크시스템	이현준	삼성전자(주)
	클라우드컴퓨팅	박민혁	삼성전자(주)
	디지털건축	백승빈	서울공업고등학교
동메달 (6)	정보통신망설비	금해강	HD현대중공업(주)
	CNC선반	미르자모히드알리	HD현대중공업(주)
	화훼장식	남윤희	삼육대학교
	의상디자인	최보란	부천대학교
	그래픽디자인	권이겸	구미전자공고등학교 졸업
	수처리기술	최수호	한국수자원공사
우수상 (16)	메카트로닉스	정세훈, 주홍재	삼성전자(주)
	CNC밀링	전원규	삼성전자(주)
	소프트웨어앱개발	최유림	삼성전자(주)
	타일	염정민	인덕과학기술고등학교 졸업
	자동차차체수리	장태준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졸업
	배관	김종석	HD현대중공업(주)
	가구	윤정민	에몬스
	실내장식	이다은	에몬스
	목공	신지윤	에몬스
	피부미용	이다연	병천고등학교 졸업
	자동차정비	김대성	전주공업고등학교 졸업
	요리	박재연	롯데호텔
	제빵	신지현	동원과학기술대
	중장비정비	서장원	HD현대건설기계(주)
	3D디지털게임아트	김민정	가천대학교
	로봇시스템통합	김규빈, 김동혁	삼성전기(주)

- 국제기능올림픽 조직위(WSI)는 공식결과(Official results)로 이번 대회에 총 4개지표를 국가별 비교순위 지표로 공식 발표함

<참고: WSI 국가별 비교 순위 공식 발표 자료(4개)>

항 목		산 출 기 준
①	평균 점수 (Average Points Scored)	참가선수별 취득점수의 총 합계÷국가별 참가직종수
②	총 메달점수 (Total Medal Points)	(금메달*4점)+(은메달*3점)+(동메달*2점)+(우수상*1점)
③	평균 메달점수 (Average Medal Points)	(금메달*4점+은메달*3점+동메달*2점+우수상*1점)÷국가별 참가직종수
④	참가선수 총 점수 (Total Points Scored)	참가선수별 취득 점수의 총합계

- 우리나라는 4개 지표별 순위 근거에 따라 참가국 수를 기준으로 점수화하여 합산 총계로 종합순위를 결정

<우리나라 종합순위 산정(예시)>

국가	평균 점수		평균 메달점수		총 메달점수		참가선수 총 점수		합계	최종 순위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00국	1위	60	3위	58	2위	59	1위	60	237	1위
00국	2위	59	2위	59	1위	60	3위	58	236	2위
00국	3위	58	1위	60	2위	58	4위	57	233	3위
00국	4위	57	4위	57	4위	57	2위	59	230	4위

* 60개국이 대회에 참가한 경우를 기준으로 역산 점수화한 예시임

- 참고로, 각 국은 WSI 발표를 근거로 자국의 종합순위를 유연하게 발표*하고 있음

* (중국) 금메달 수, 총메달 수, 참가선수 총점수를 합산 없이 발표, (대만) 총메달 점수 순, (일본) 금메달 순, (독일) 총메달 점수와 참가선수 총점수 2가지로 종합순위 발표

- 19년만의 헤어디자인 직종 금메달 탈환, 대회 이변 돌풍 -
[헤어디자인 직종 김조영 선수(22세)]

《헤어디자인(영문: Hairdressing)》 직종

고객의 요구와 최신 트렌드에 맞춰 커트, 컬러, 퍼머넌트, 업스타일 등 다양한 기법으로 헤어스타일을 디자인하고 완성하는 직종

- 2007년 일본 시즈오카 대회 이후 19년간 굳게 닫혀 있던 헤어디자인 직종의 메달 문을 김조영 선수가 다시 열었다.
 - 김 선수는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좋아 인형 머리를 곧잘 만지며 놀았고, 그 재능을 알아본 부모님의 권유로 미술을 배웠다.
 - 선수는 산업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평생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했고, 미술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한 미용 분야를 진로로 선택했다.
 - 김 선수는 그중에서도 가장 어렵다는 헤어디자인 분야에 도전했다. 미용 교육 현장에 긍정적인 문화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자신만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숙련기술의 길에 들어섰다.
- 김 선수는 체력적, 정신적으로 힘든 것은 국가대표라면 당연히 겪어야 할 과정으로 받아들였다. 정작 가장 힘들었던 것은 '막막함'이었다.
 - 경쟁국 선수들의 기량도, 출제될 과제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조언을 구할 곳조차 없었다. 김 선수는 훈련 기간을 "도착점이 어딘지 모르는 오래달리기 같았다"라고 회상했다.
 - 오랫동안 금메달이 없었던 직종이라는 부담도 컸지만, 그보다 더 무겁게 다가온 것은 훈련장에 걸린 태극기였다. 개인의 진로 고민보다 국가대표로서 태극기를 달고 나선다는 책임감이 앞섰다. 그럴수록 마음을 더 단단히 다잡았다.

□ 이번 대회 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과제들이 이어졌다.

○ 이발기 없이 가위만으로 실제 모델의 머리를 자르는 남성 커트와 곱슬머리를 펴서 스타일링하는 과제는 처음 접하는 조건이라 특히 까다로웠다. 도면을 똑같이 재현해야 하는 업스타일 과제에서는 구도를 잡는 데 애를 먹었다.

○ 반면, 평소 자신 있던 붙임머리 과제와 남성 스타일 과제에서는 앞선 과제의 아쉬움을 만회하는 데 집중했다.

□ 김 선수는 메달의 영광을, 곁을 지켜 준 지도위원들에게 돌렸다.

○ 같은 길을 걸어온 선배들은 선수의 막막하고 힘든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었다. 결과와 상관없이 충분히 자랑스럽다는 격려는 김 선수에게 큰 힘이 되었다.

○ "기능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끌어 주신 김경란 선생님과 정다운 부지도위원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며 "두 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전한다"라고 말했다.

○ 또한 김 선수는 상하이에 함께 오지 못한 부모님께 메달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고 싶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 김 선수는 이번 메달을 발판 삼아 후배들에게 좋은 밑거름이 되는 선배로서 미용계에서 더 활발히 활동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며 응원의 말을 건넸다.

- 웹기술 직종 5회 연속 금빛 물결을 이어가다 -
[웹기술 손현빈 선수(21세, 삼성전자), 금메달]

《웹기술, (영문 : Web Technologies)》 직종

웹사이트 디자인 및 개발에 필요한 기술들을 활용하여 주어진 주제 및 요구에 맞게 창의적으로 디자인하고 기능을 구현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직종

- 웹기술 직종에 출전한 손현빈 선수가 이번 대회 금메달을 획득하며 2017년 아부다비 대회 이후 웹기술 직종 5회 연속 금메달의 대기록을 완성했다.
- 손현빈 선수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해 수능으로 대학을 준비하기 보다, 일찍 취업하겠다는 생각으로 특성화고등학교를 선택했다.
-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입한 웹디자인 동아리에서 직접 만든 결과물이 웹페이지에 그대로 구현되는 것을 보고 신기함과 흥미를 느꼈고, 이것이 웹기술 직종 국가대표의 길로 이어졌다.
- 선배들이 이어온 금메달 행진은 큰 자부심이자 무거운 부담이었다.
- 손 선수는 "부담감이 없었다면 거짓말"이라며, 국가대표가 된다고 금메달이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아닌 만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여러 차례 타 국가와의 친선경기를 치르며 후회 없는 결과를 위해 훈련에 모든 것을 쏟았다고 전했다.
- 큰 슬럼프는 없었지만, 긴 훈련이 언제 끝날지, 결과는 어떨지 모르는 다는 막막함이 가장 힘들었다. 그럴 때마다 선배들이 걸어온 길을 곁에서 지켜보며 언젠가 끝이 오고 자신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버텼다.

□ 대회 기간에는 매일 밤이 또 하나의 경기였다.

- 웹기술 직종은 다음 날 오전·오후 과제가 하루 전에 공개된다. 경기 시간은 3시간이지만, 처음 보는 과제를 풀면 5~6시간이 걸릴 만큼 과제의 양이 많다.
- 손 선수는 대회 기간 내내 부지도위원과 함께 서로 잠을 거의 자지 않고 숙소 방에서 노트북 한 대를 앞에 두고 다음 날 과제에 몰두했다.
-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 온 프론트엔드 분야는 손현빈 선수에게도 강점이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의 과제를 소화해야 하는 직종 특성을 잠을 줄여가며 준비한 끝에 정상에 올랐다.

□ 경기를 마친 손현빈 선수는 "아직 끝났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한국에 돌아가도 계속 훈련을 해야 할 것 같다"라며 웃었다.

- 손 선수는 이번 경기에 스스로 100점을 주고 싶다고 했다. 현장까지 응원을 온 부모님과 두 형, 코치와 관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후회 없는 경기를 펼쳤기 때문이다.
- 선수 생활 동안 가장 바랐던 것은 평범한 일상이었다. 친구들과처럼 등교와 하교를 하고, 맛있는 것을 먹고, PC방에 가는 소소한 일상을 이제는 누려보고 싶다고 전했다.

□ 손 선수는 AI 시대에 발맞춰 더 깊이 있는 전문가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손 선수는 "AI의 발전으로 IT 업계가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현업의 개발자들은 그 변화에 적응하며 오히려 더 발전해 나가고 있다"며 "그 마음가짐을 이어받아 AI 분야를 공부하며 더 깊은 전문가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 또한 후배들에게는 "부담감은 조금 내려놓고, 자신만의 페이스를 만들어 훈련과 경기에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남겼다.

- 두 번의 은메달을 넘어, 광전자기술 직종 첫 금메달을 밝히다 -
[광전자기술 직종 유예찬 선수(21세, 삼성전기), 금메달]

《광전자기술(영문: Optoelectric Technology)》 직종

조명 조립, LED 디스플레이 설계·설치, 네온 스트립 디자인 등 빛과 관련된 전자 장비를 설계하고 제어하는 직종으로, 전광판과 네온사인 등 다양한 조명 기술에 활용

- 2022년과 2024년 대회에서 연이어 은메달에 머물렀던 광전자기술 직종에서 유예찬 선수가 대한민국 최초의 금메달을 획득했다.
 - 유예찬 선수는 원래 공업전자기기 직종 선수였지만,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고배를 마셨다. 납땜과 프로그래밍 등 비슷한 기술을 다루는 광전자기술 직종으로 바뀌 선발전을 다시 치렀고, 마침내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 직종을 바꾸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한 번도 다뤄보지 않은 PLC 등을 처음부터 익혀야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한 끝에 세계 무대에 섰다.
- 비교적 새로운 직종인 만큼 대회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는 과정부터 쉽지 않았다.
 - 신규 장비를 도입하는 등 최적화된 훈련 환경을 조성해 대회 준비에 큰 도움이 됐다. 특히 지도위원, 부지도위원은 유 선수의 장비 적응 훈련 등을 지원하며 경기력 향상에 힘을 보탰다.
- 대회에서는 예상과 다른 결과가 이어졌다.
 - 가장 자신 있었던 LED 디스플레이 설치 과제에서는 패널이 작동하지 않아 아쉬움이 남았지만, 오히려 가장 자신 없던 과제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냈다.

○ 유 선수는 경기를 마친 소감으로 "홀가분하다"라면서도, 코치가 제시한 다양한 전략을 과제에 맞게 모두 소화하지 못했이라며 스스로에게는 60점을 주고 싶다고 겸손하게 말했다.

○ 그는 지도위원과 부지도위원, 통역위원이 서로 호흡이 잘 맞았던 덕분에 대회를 잘 치를 수 있었다며, 삼성전기와 공단 관계자 등 도움을 준 모든 분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

□ 쉽 없이 달려온 유예찬 선수는 이제 자신을 위한 휴식을 꿈꾼다.

○ 그동안 해외는 대회나 연수를 위해서만 가봤다는 유 선수는, 이번에는 지금까지 달려온 자신을 위해 온전히 쉬러 떠나고 싶다며 일본 삿포로 여행을 꿈꿨다. 또 이번 대회에서 함께 경쟁한 중국 선수와 충칭에 놀러 가기로 약속했다며, 경쟁을 넘어선 우정을 전하기도 했다.

○ 앞으로는 회사에서 어학 등 역량을 갖추며 커리어를 쌓아갈 계획이다. 유 선수는 "후배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선배로서의 노력도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 길이 없던 신규 직종, 스스로 길을 만들어 세계 무대에 오르다 -
[소프트웨어 테스팅 직종 이주원 선수(20세, 삼성전자), 은메달]

《소프트웨어 테스팅(영문: Software Testing)》 직종

모바일 앱, 웹사이트, 서버 등 소프트웨어가 사용자에게 배포되기 전에 요구 사항대로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증하고, 결함과 문제를 찾아내 품질을 보증하는 직종으로 이번 대회 신규 도입 직종

- 이번 대회에 처음 도입된 소프트웨어테스팅 직종에서 이주원 선수가 은메달을 획득하며, 신규 직종 첫 대회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 이 선수가 처음부터 이 직종을 준비한 것은 아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직종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고배를 마신 직후, 소프트웨어 테스팅 직종이 신설된다는 소식을 듣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 4개 모듈 가운데 기존에 준비하던 분야와 겹치는 것은 1개뿐이었다. 나머지 3개 모듈은 완전히 새로운 분야여서 기초부터 새로 익혀야 했다.
- 선례가 없는 직종이었던 만큼,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정하는 것부터 큰 과제였다.
- 국제대회에서는 처음 치러지는 직종이었지만, 개최국 중국에서는 이미 자국 기능경기대회에서 해당 직종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지도위원이 전반적인 자료를 찾아주었고, 이 선수는 중국 웹사이트에 공개된 자료까지 직접 찾아가며 스스로 기술을 익혔다.
- 어떤 과제가 출제될지 알 수 없었기에, 찾을 수 있는 과제는 모두 구해 빠짐없이 연습했다.
- 대회에서는 앱이 요구사항대로 잘 작동하는지 검증하는 과제 등이 출제됐다.

○ 평소 훈련 중 자신 있던 모바일 앱과 웹페이지 테스트 과제는 안정적으로 수행했지만, 스스로 약점으로 여겼던 서버 성능 테스트에서는 이번 대회에서도 어려움이 컸다.

○ 이 선수는 이번 대회를 치르며 아쉬웠던 점도 솔직하게 털어놨다. 지도위원이 제시한 과제 전략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전체보다 세부 과제에 매몰된 순간이 있었다며, 후배들에게는 "지도위원님의 조언을 믿고, 부분에 매달리기보다 전체 흐름을 보며 경기를 진행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이주원 선수는 가장 고마운 사람으로 지도위원을 꼽았다.

○ 직종 출전이 확정되기 전부터 한결같이 믿고 지지해 준 지도위원 덕분에 끝까지 도전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 대회를 마친 이 선수는 당분간 휴식을 취하며 가족과 시간을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 그동안 훈련하느라 부족했던 잠을 실컷 자고, 가족과 맛있는 식사를 하며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 이 선수는 이후에 회사로 복귀해 소프트웨어테스팅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가고 싶다는 포부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아낌 없이 지원해 주신 삼성전자와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